

회원은 협회의 “힘의 원천”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는 1955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서의 자질 향상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는 유일한 법정 단체로서, 이를테면 전국도서관과 사서들이 가꾸어 내는 “전문가들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유난히 낙후되어 있는 우리 분야를 돌아볼 때, 이 시대 이 나라 도서관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 사서가 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힘과 슬기를 모아야 할 필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협회 회원 수를 늘리는 것은, 다소간에 협회의 회비 수입이 늘어 난다는 부차적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응집력이 커져 회원의 일체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먼저 도협 회원 현황을 살펴 보면 1996년 4월 현재 단체회원 수는 940개관, 개인회원 수는 1,313명이며, 1995년 작년 한 해 동안 단체회원 60개관, 개인회원 149명이 증가하였다.

한편 1995년 12월 31일 기준 사서자격증 소지자 현황은 1급정사서 451명, 2급정사서 19,645명, 준사서 15,108명으로서 합계 35,204명인데 1995년 한 해 동안 1급정사서 51명, 2급정사서 1,353명, 준사서 758명이 늘어나 총 2,16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도협의 개인회원은 우리나라 사서자격증 소지자 35,204명 중 1,313명으로 3.7%에 해당되며, 1995년 한 해 동안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2,162명이 증가하였지만 도협의 개인회원은 단지 149명만이 증가하여 0.7%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1995년 도협의 전체 수입 가운데 회원의 회비는 42.5%인데 이 중 단체회원으로부터의 수입이 40%이며, 개인회원으로부터의 수입은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개인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95년 한 해 동안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2,162명 배출되면서도 도협 개인회원 가입자 수는 149명 뿐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될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협의 임직원이 회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회원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하지 못한 탓이 클 것이며, 다음으로는 기존 회원들도 많은 동료·후배들로 하여금 도협에 가입토록 권장하는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리 한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단체에 있어서 인적자원이 중요한 이유는 회비 수입 증대를 통한 물적자원의 증대에도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향력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동원력이라는 위력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적자원은 그 자체가 동원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일체감과 지도층의

능력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협회원의 응집된 힘과 도협이라는 조직이 한데 뭉쳐 노력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회원수를 늘려 우리의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은 자명하다고 본다.

도협의 전체수입 측면에서 보면 개인회원보다는 단체회원이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듯이 개인회원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의 힘이 뒷받침될 때 단체회원의 수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므로 우선 개인회원 수를 늘리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하겠다.

도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조직체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켜 왔다. 이는 이 조직체를 지키고 키워야 하겠다는 선배회원들의 사명감과 신념,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이 강하게 응집된 힘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다행히 최근에는 도협 사무국에서도 현직 사서와 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간곡한 서한을 내는 등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보다 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주기를 바란다.

근원적으로, 도협은 누구의 것이며,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임직원이 해야할 일을 잘하고 있느냐, 회원을 늘리는 것도 임직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탓하기에 앞서 우리들 회원 모두가 나서서 미가입동지들에게 회원가입의 당위성을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가입하도록 꾸준히 권장해가야 하겠다.

(양 병 훈/승의여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